

감정형용사 「うれしい」의 사용실태 분석

김 정 화
(경희대학교)

1. 머리말

감정이란 사람이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에 접하거나 관계를 맺는 가운데 경험하는 것으로 표정이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양상을 통해서 혹은 언어적 표현을 통해 표현되어진다. 모든 언어적 표현에는 감정이 내재되어있으며, 감정은 또한 언어로 표현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감정의 언어적 표현은 개인이 속한 문화나 상황, 개인의 성격에 의해 축소되거나 과장, 왜곡될 가능성이 가장 크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경우 감정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으나 다양하고 섬세하게 내적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발달된 감정표현방식이라 할 수 있다¹⁾. 언어와 연관 지어 감정을 연구하는 것으로는 형용사의 의미용법이나 관용적인 표현, 비유표현, 오노매토피어 등과 같은 것이 있다. 그중에서도 형용사는 감정표현 연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방법이다. 이는 형용사가 갖는 특질이 화자 자신이나 어떠한 특정한 대상에 대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한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처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2차 우수연구논문 장학금으로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1) 박인조·민경환,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작성과 차원탐색」, 한국심리학회지, 2005.

럼 화자 자신이나 특정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 감각, 평가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감정형용사라고 하며 가장 대표적인 어휘로는 「こわい、ほしい、うれしい」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감정형용사를 술어로 하는 문의 특징에 대하여 지금까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문에 나타난 감정의 표현양상을 살펴보면 개인이 속한 사회나 문화의 성향을 유추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기쁨(喜び)²⁾’이라고 하는 감정이 어떻게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기쁨’에 대하여 西尾寅弥(1993)는「喜び・楽しみのことば」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³⁾.

喜びの感情そのものを最も直接的に表す、代表的な語は「うれしい」という形容詞で、「悲しい」と相対していると言えよう。「うれしい」は古代から使われていて、源氏物語では二百回余り使われているが、現代語でも非常に基本度の高い語である。あることが生じたり、何かを知ったりした時に、それが自分にとり望ましい、価値の高いことで、心がおどるように明るくなった状態を意味する。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자신에게 바람직하고 높은 가치가 있어 마음이 들뜨고 밝아지는 상태를 ‘기쁨’ 이라고 정의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西尾寅弥는 ‘うれしい’를 들고 있는 것이다. 한편 河原修一(1998)는『日本語心象表現論』에서 일본어에는 <不快>를 나타내는 어휘가 많다고 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⁴⁾.

2) 기쁨(喜び)은 이하, ‘기쁨’으로 표기한다.

3) 西尾寅弥「喜び・楽しみのことば」, 日本語学, 明治書院, 1993. pp14-21.

<不快>의感情は生命維持に不可欠な警告であることが多く、<快>の感情は生命の安全を基礎とした、余裕のある文化的指標であることが多いためと考えられる。あるいは、日本人の民族感情のベースにある無常感や、忌憚のない感情の表出(特に喜びの表出)慎む論理観(生活態度)によるのかもしれない。

<不快>의 감정은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경고인 것이 많고, <快>의 감정은 생명안전을 기초로 한 여유가 있는 문화적지표인 것이 많다. 이는 어쩌면 일본인의 민족감정 저변에 무상감이나 기탄없는 감정표출 특히 기쁨의 표출을 삼가는 생활태도에 의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河原修一은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쁨의 표출을 삼가는 일본인들이 ‘余裕のある文化的指標’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실제로 어떻게 언어로 표현되어 나타나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효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쁨’을 나타내는 감정표현의 사용실태 및 용법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기쁨’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분석대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쁨’의 가장 대표적인 형용사 어휘인 ‘うれしい’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우선 일본국립국어연구소자료집 『分類語彙表』⁵⁾의 초판(1964)과 개정판(2004)을 비교하고 분류번호 3.3011快·喜び의 어휘를 의미별로 하위분류하여 ‘うれしい’의 유의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일본국립국어연구소의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⁶⁾ YAHOO知恵袋를 분석대상으로 『嬉しい／うれしい』를 포함하는 예문을 추출하여 기본적인 용법을 살펴보고 감정의 주체가 기뻐하는 원인이나 기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구문 속에 어떻게 나타나며 어떤 영역의 기쁨인가를 규명한다. 또한 ‘うれしい’와 공기하는 수수표현, 조건표현을 통해 그 사용실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기쁨’ 과 그에 대한 일본인의 의식의 일면을 알아볼 수 있다.

4) 河原修一『日本語心象表現論』. おうふう, 1998. pp 77-92

5) 『分類語彙表—増補改訂版』. 国立国語研究所, 2004.

6) 日本国立国語研究所의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는 白書/ Yahoo! 知恵袋 / 書籍/ 国会会議録으로 나누어져 있다.

III. ‘기쁨’의 의미분류

‘うれしい’의 사용실태를 분석하기에 앞서 유의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分類語彙表』의 초판(1964)과 개정판(2004)을 통해 변화를 살펴보고 대표적인 의미별로 하위분류해보도록 한다.

‘うれしい’는 초판에서는 3.3010, 개정판에서는 3.3011에 다음과 같은 어군으로 성립되어 있다. 초판과 개정판에 공통으로 수록된 어휘는 굵게 표시하였다.

- 초 판 うきうき わくわく ほくほく そわそわ 楽しい 嬉しい
 喜ばしい 快い 愉快 欣快 壮快 爽快 痛快 快適
 面白い おかしい 会心
- 개정판01 快い 心地よい 気持ち/気分/心持がよい いい気持ち/
 気分 気味/小気味のよい 小気味よい 胸のすくような
 清清 **欣快** **壮快** **爽快** **軽快** **痛快** 豪快 晴れ晴
 れ 晴れ晴れしい 晴れやか さわやか すがすがしい
 すっきり さっぱり さばさばすつと すうつと す
 かっつと(～した気分) すきつと **快適** 居心地がよい 住
 み 心地がよい
- 02 愉快 うきうき わくわく ほくほく うはうは そわ
 そわ 氣もそぞろ いそいそ
- 03 楽しい 楽しげ 喜喜 朗らか 明るい るんるん うれ
 しい うれしそう 心うれしい 上機嫌 御機嫌 機嫌が
 良い/が悪い 笑いが止らない 喜ばしい 喜んで 欣然
- 04 おもしろい **おかしい**/な コミカル おもしろおかしい
 興味深い 興味津津 興味ある

초판에 비해 개정판에서는 어휘수가 증가하였으며, 초판에는 없는 ‘コミカル’와 같은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어구성면을 살펴보면 초판에는 단순어와 속어가, 개정판의 경우에는 단순어와 속어 외에 복합어와 연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파악되었으며 다음의 <표1>과 같다.

	초판	개정판
단순어	10	26
복합어	0	13
숙어	7	12
연어	0	6

<표1 어구성>

학자에 따라 ‘기쁨’의 하위분류에 차이가 나타난다. 『感情表現辞典』7)에서 中村明(1979)는 감정을 10종으로 분류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めでたい・うれしい・満足・楽しい・快・微笑’로 하위분류하고 있다. 위의 개정판에 나온 어휘들을 대표적인 의미면에서 보면 다음의 <표2>와 같이 ‘快い・愉快・嬉しい・楽しい・面白い・笑い’로 하위분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 의미	의미별 어휘
快い	快い 心地よい 気持ち/気分/心持がよい いい気持ち/気分 気味/小気味のよい 小気味よい 胸のすくような 清清 欣快 壮快 軽快 痛快 豪快 晴れ晴れ 晴れ晴れしい 晴れやか さわやか すがすがしい すっきり さっぱり さばさば すつと すうと すかっと すきっと 快適 居心地がよい 住み心地 がよい
愉快	愉快 うきうき ほうほう ほうほう わくわく いそいそ 爽快
嬉しい	うれしい うれしそう 心うれしい 上機嫌 御機嫌 機嫌がよい 喜ばしい 喜んで 欣然
楽しい	楽しい 楽しげ 喜喜 朗らか 明るい るんるん
面白い	おもしろい おかしい/な コミカル おもしろおかしい
笑い	うはうは 笑いが止らない 興味深い 興味津津 興味ある 享 樂的

<표2 ‘기쁨’의 하위분류>

7) 中村明『感情表現辞典』, 東京堂出版, 1994.

위에서 『分類語彙表』의 초판과 개정판을 비교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판에 비해 개정판에서는 어휘수가 증가하였으며, ‘コミカル’와 같은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구성면에서는 초판에는 어휘의 형태가 단순어와 속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판의 경우에는 ‘心地よい’ ‘小気味よい’와 같은 복합어와 속어, ‘胸のすくような’ ‘住み心地がよい’와 같은 연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파악되었다.

의미면에서 ‘快い・愉快・嬉しい・楽しい・面白い・笑い’로 하위분류되며, 이는 감정의 주체가 되는 인간의 감정이 세분화되었으며 기뻐하는 내용들이 더욱 다양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의미를 大辞林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快い’ 마음에 산뜻하다, 기분이 좋다(心にさわやかに感じられる. 気持ちよい),
- ‘爽快’ 상쾌하고 기분이 좋음(さわやかで気持ちのよいこと),
- ‘愉快’ 즐거워서 기분이 좋음(楽しくて気持ちのよいこと),
- ‘楽しい’ 마음이 가득 차 들떠서 밝고 유쾌한 기분
(心が満ち足りて、うきうきするような明るく愉快的な気分である),
- ‘うれしい’원하던 일이 실현되어 마음이 들뜨고 즐겁다. 마음이 상쾌하고 기쁘다
(望ましい事態が実現して) 心がうきうきとして楽しい. 心が晴れ晴れとして喜ばしい)
- ‘おもしろい’ 즐겁다, 유쾌하다(楽しい. 愉快だ)
- ‘笑い’웃는 일. 또는 웃는 표정·목소리(笑うこと. また‘笑う表情・声)

본고에서는 그 가운데 ‘가장 기본도가 높은 어휘(非常に基本度の高い語である)’⁹⁾인 ‘うれしい’를 원하던 일이 실현되어 마음이 상쾌하고 기쁘고 즐거운 기분이라고 정의하고 그 사용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8) 『大辞林第三版』. 三省堂, 2006.

9) 西尾寅弥「喜び・楽しみのことば」. 日本語学, 明治書院, Vol 12. 1993. pp14-21.

IV. ‘うれしい’의 사용실태와 용법

‘うれしい’의 기본적인 용법과 공기하는 표현용법의 사용실태 분석을 위해 일본국립국어연구소의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¹⁰⁾』, YAHOO知恵袋에서 예문을 추출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うれしい’의 기본적인 용법

‘うれしい’와 같은 감정형용사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을 『日本語を教える4』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¹¹⁾.

話し手や聞き手の感情を直接的に表現するものであり, ある状況や物事に接した時に話し手や聞き手がそれを自分と関わるものとして, 直接, 即時的に感じる喜ばしい気持ちを表した語です。[···] このように「うれしい」は直接的で即時的な感情を表す語ですから、「なぜうれしいのか」「何がうれしいのか」など、うれしい気持ちの原因や嬉しいと思える内容をもつものを文面に出すのが普通です。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 접했을 때 <화자>나 <청자>가 그 상황을 자신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그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느끼는 기쁨을 표현하는 어휘이다. 따라서 감정의 주체로서의 <화자>를 확실히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며, <기쁨의 원인이나 내용> 즉 <기쁨의 대상>이 문에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 다음의 예문은 그와 같은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예문이다.

- (1)私に感謝してると返事が来ました. とても嬉しかったです.
 (2)半年ほど前に妊娠したので,とても嬉しかったのですが, 5週目ぐらいで,

10) 日本国立国語研究所, 前掲書.

11) 桜木紀子・佐藤由紀子・中村寿子『日本語を教える4』, 1991. pp233-236

예문은 (1)감사의 편지가 와서 기쁘다거나 (2)원하던 일이 이루어져서 기뻐했다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うれし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기쁨을 느끼는 주체가 문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기쁨의 원인이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2. 감정의 주체

위의 예문(2)를 보면 어느 곳에도 감정의 주체로서의 <화자>가 나타나 있지 않다. 감정의 주체가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일본어의 감정형용사는 <화자>의 감정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池上嘉彦(2006)은『英語の感覚・日本語の感覚』¹²⁾에서 <화자>가 문에 드러나지 않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話し手は自分が臨場している事態の中に身を置いたままで、その視座から事態把握をする。その際の事態把握では、話し手は自らを原点として、そこから事態を眺め、把握する。それゆえ、話し手自身は自らの視野に入らず、客体化されないから言語化の対象にならない。[...] 日本語の話し手がある事態を言語で表現しようとする際に採るスタンス、ということでのさまざまな具体例の検討を通じて得られた一つの特徴は臨場的に捉えて、言語化する一つまり、問題の事態の中に身を置き、体験的に語る¹³⁾

<화자>가 현장에서 직접 체험(臨場的)한 것을 표현하는 문에서는 화자(체험자)는 관찰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화자>와 <체험자>가 동일하다. 따라서 문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을 ‘주체의 제로화(ゼロ化)’라고 표현하고 있다.

화자와 체험자가 동일인이 아닌 3자의 경우에도 제3자 자신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체험내용이므로 ‘주체의 제로화’가 나타난다고 한다.

12) 池上嘉彦『英語の感覚・日本語の感覚』. 日本放送出版協会, 2006. pp192-197

13) 前掲書 . pp189-197

일본어의 감정형용사문에 ‘주체의 제로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것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감정의 주체로서 <화자>가 문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나타낸 예문이다.

- (3)「よろしく!」と、言われてとても嬉しかったですよ。
- (4)すぐに赤ちゃんを手元に抱けるのが嬉しかった。
- (5)知ってる人がいてうれしー
- (6)「君が笑うと嬉しくて明日がなくても構わない」
- (7)クリスマスソングかも教えてもらえると嬉しいです。

(3)~(6)까지는 감정의 주체가 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화자>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것(臨場的)이므로 감정의 주체인 <화자>가 나타나지 않는 <주체의 제로화>현상을 볼 수 있다. (7)의 예문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체험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표현한 문으로 여기에도 역시 <주체의 제로화>로 인해 감정의 주체인 <화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은 「~ですか」라는 의문문 형태로 <청자>의 감정을 표현한 예문이다.

- (8)と言ってもらえたとき. …どっちが嬉しいですか?
- (9)誕生日におめでとうメール来るのはうれしいですか.
- (10)出産のお祝いには何が嬉しいですか.
- (11)今まで好きな人や彼氏に言われて一番嬉しかったセリフは何人ですか?

<청자>의 감정을 묻는 예문으로 (8)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느 쪽이 기뻐하는가를 묻고 있으며 (9)생일에 축하메일이 오면 기쁘지, 앞으로 축하메일을 받는 상황을 미리 상정해서 <청자>의 감정을 묻는 것으로 역시 <청자>가 감정의 주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자>가 문에 나타나지

않는 <주체의 제로화>로 인해 감정의 주체가 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예문 (10)(11)은 축하선물로 무엇이 좋은지,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를 묻는 표현이다. 의문문의 형태로 <청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도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느끼는 ‘기쁨’을 체험한 것으로 감정의 주체가 문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감정의 주체가 <화자>가 아닌 <제3자>의 감정을 표현한 예문이다.

- (12)女性としゃべっている時にその女性がうれしそうに話をきいているのを見ると男性は・・
- (13)他の家族と身近に食べるのがうちの子供は嬉しかったみたいですよ。

예문(12)은 <화자>와 <체험자>가 동일인물이 아니라 <제3자(女性·子供)>의 경우로 <제3자>가 감정의 주체가 되어 체험한 것을 표현하는 문이라 하겠다. 예문(13)도 <제3자>의 체험을 표현한 문이기는 하나, <화자>가 그 자리에서 <제3자>의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12)와는 다르다. 또한 <제3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과거형·~そうだ·~のだ·~ものだ·~みたいだ』등과 같은 형태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 제시된 예문을 포함하여 기쁨을 느끼는 감정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빈도수를 숫자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4>에서 보듯이 <청자>의 경우도 결국 <화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うれしい’는 대부분 감정의 주체가 <화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정의 주체	화자	청자	제3자
빈도수(총244)	206	21	17

<표3 감정의 주체 >

3. 기쁨의 원인이나 내용

다음은 감정의 주체가 ‘うれしい’ 라고 느끼는 원인이나 내용이 무엇인가 즉 <기쁨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예문을 통해 분류한 예이다.

- (14)ウイスキーに付いたショットグラスは嬉しいけど、
- (15)好きな彼女からもらったクッキー……嬉しいですね。

예문(14)(15)는 받은 물건으로 인해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공통이지만 (14)는 생각지도 않게 떨어진 컵이라는 점이 (15)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받은 과자라는 점이 다르다.

- (16)あと値段の相場なんかも教え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
- (17)どなたか助言して頂けると嬉しいです。
- (18)体験談なども聞かせ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

예문(16)(17)은 가격시세나 조언 등을 얻을 수 있어서 (18)은 체험담을 들려준다면 감정의 주체에게 도움이 되므로 기쁘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이다.

- (19)私に感謝すると返事が来ました。とても嬉しかったです。
- (20)わざわざメールしてくれてるとくれたら嬉しいです!
頑張れ!!
- (21)お人柄の伺える丁寧な対応とかも嬉しいです。
- (22)でもポッキーさんがいるので凄い嬉しいです
- (23)好意を持たれるのって嬉しいもんです。

예문(19)는 감사하다는 편지가 와서 (20)은 일부러 메일을 보내준 것이 기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21)은 화자의 마음을 알아주어서 (22)는 한 사람의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23)은 호의를 얻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있다.

다음 예문은 타인으로 인해서라기보다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인해

기뻐하는 예문이다.

- (24)半年ほど前に妊娠したので、とても嬉しかったのですが
- (25)もちろんスルスル痩せて行き、嬉しいのですが栄養面が怖くなり
- (26)私に初めてカミングアウトしてくれて嬉しかったのですが好きな人がゲイだったのは

예문(24)와 (25)는 임신을 기뻐하거나 낯선해져가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예문(26)은 다른 누구에게보다 먼저 자신에게 커밍아웃(カミングアウト) 해준 것을 기뻐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아온 예문은 주로 감정의 주체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기쁨>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음 예문은 타자에게 일어난 일로 인한 기쁨 즉 <사회적 기쁨>을 나타내는 예문이다.

- (27)死なせず元気に回復した姿には少し嬉しくなりました.
- (28)友達が結婚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とても嬉しいのですが、どこか寂しいような気持ちも
- (29)真面目にスキーに取り組む人がいるのは嬉しいことです.
- (30)三菱車が販売順位30車外でうれしかったです.

예문(27)~(30)은 건강 회복한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거나, 친구의 결혼 등과 같은 타자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기뻐하는 경우로 이는 <사회적 기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쁨>이라고 해도 화자가 잘 아는 사람이거나 친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감정의 주체가 타자에게 일어난 상황을 기쁘다고 표현했다는 것은 타자를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거나,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기쁨>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하겠다.

위에 제시된 예문을 포함하여 ‘うれしい’ 라는 감정의 대상이 개인적인가 사회적인가의 빈도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화자 자신과 관련된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정의 대상	개인적	사회적
빈도수(총244)	241	5

<표4 감정의 대상 >

V. ‘うれしい’와 공기하는 표현용법

각각의 예문을 통해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수수표현>과 <조건표현>이 ‘うれしい’와 공기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우선 <수수표현>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 <화자>가 기쁨을 느끼는가, 가장 기쁨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가 살펴해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조건표현>과 공기하여 기쁨을 느끼는 주체로서의 <화자>가 자신의 시점에서 기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기쁨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본다. 또한 <조건표현>+<수수표현>과 공기하는 예문을 통해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고 일본인이 기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수수표현과 공기하는 ‘うれしい’

‘うれしい’는 「なぜうれしいのか」 「何がうれしいのか」 등, 기뻐하는 원인이나 기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문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나 내용이 <수수표현>과 공기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森田良行의 『日本語文法の発想』¹⁴⁾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일본어의 수수동사에는 방향성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표현자의 시점이 나타나있다. 상대가 주는 자, 자신이 받는 자, 또는 자신이 주는 자라는 상황내용에 따라 어휘사용이 달라지며, 자신이라고 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사용되는 일은 없다. 수수동

14) 森田良行 『日本語文法の発想』. ひつじ書房, 2004, pp221-232

사를 의미면에서 ‘～てやる(～てあげる)’는 자행타리(自行他利), ‘～てくれる’는 타행자리(他行自利), ‘～てもらう’는 자행자리(自行自利)라고 분류하고 있다. 자리(自利)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는 ‘～てくれる/～てもらう’는 ‘～てくれる’에 감사의 마음이 있는데 반해 ‘～てもらう’에는 이익의 자주적 수여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うれしい’가 『もらう/くれる』와 같이 물건이나 행위 및 마음을 주고받는 것을 나타내는 수동사와 어떻게 공기하는가에 따라 화자의 시점에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으며, 주는 사람이 화자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각 ‘もらう(いただく)/～てもらう(～ていただく)/～てくれる’와 공기하는 표현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もらう(いただく)’와 공기하는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31)質問をして、たくさんの回答をいただけると嬉しくなりませんか？

(32)足に良い靴を貰えたら、嬉しいです。

‘もらう’와 공기하여 (31)회답이나 (32)구두와 같은 물건이 상대방부터 화자에게 오는 타행자리(他行自利)를 나타내고 있다. ‘いただける’로 상대가 손윗사람(目上)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てもらう(～ていただく)’와 공기하는 예문이다.

(16) あと値段の相場なんかも教え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

(17) どなたか助言して頂けると嬉しいです。文面からの判断ですから

(18) 体験談なども聞かせ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

자행자리(自行自利)로서 이익의 자주적 수여를 나타낸다. 예문(16)은 상대방에게 가격시세에 대하여 (17) (18)은 조언이나 체험담을 듣기를 화자가 원하였으며 상대가 할 것을 알 수 있다.

‘～てくれる’와 공기하는 예문으로는

- (33)『細かい事やこだわりに気がついてくれて嬉しいわ』と
 言ってくれる人もいますけれど
 (34)頑張ってくれると、とっても嬉しく有り難いものなんです。
 (35)忘れずつけてくれて嬉しかったです

예문(33)~(35)의 ‘~てくれる’는 상대가 주는 자, <화자>가 받는 자라는 타행자리(他行自利)로 ‘~てもらう’와는 자리(自利)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지만 ‘~てもらう’에는 이익의 자주적 수여, ‘~てくれる’에는 감사의 마음이라는 차이가 있다.

위에 제시된 예문을 포함하여 각각의 빈도수를 숫자로 정리해보면 <표5>와 같다.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うれしい’는 ‘~てくれる(~てくださる)’라는 수수동사와 공기하는 빈도수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てもらう(~ていただく)’로서, 이는 화자가 예상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물건 등을 받았을 때 기쁨의 감정이 더 커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もらう(いただく)’는 상대가 주는 자, 자신이 이익을 받는 자라는 타행자리(他行自利)의 표현이다. 그러나 ‘~てやる/~てあげる’와 공기하는 표현은 보이지 않았다.

즉 ‘うれしい’는 ‘もらう(いただく)/~てもらう(~ていただく)/~てくれる(~てくださる)’와는 공기하나 ‘~てやる/~てあげる’와 같은 수수동사와는 공기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수표현	의미	빈도수
もらう(いただく)	他行自利	15
~てやる/~てあげる	自行他利	0
~てもらう(~ていただく)	自行自利	35
~てくれる(~てくださる)	他行自利	42

<표5 ‘うれしい’와 공기하는 수수표현>

2. 조건표현과 공기하는 ‘うれしい’

‘うれしい’가 조건표현과 공기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조건표현에 대하여 松岡隆志(1993)는 『日本語の条件表現』¹⁵⁾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後件(主節)で表される事態の成立が前件(条件節)で表される事態の成立に依存し、かつ、前件が非現実の事態を表すものを条件表現と規定しておきたい。

後件(주절)이 前件(조건절)의 상황 성립에 의존한다는 조건절은 「~と」「~たら」「~なら」「~ば」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며 각각의 형식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森田良行(1995)는 『日本語の視点』¹⁶⁾에서 그와 같은 차이가 다음과 같은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同じ二つの関係に対して、「外」と「内」とで把握の意識に差を設け、ドライで客観的な「外」対「外」の因果関係の他に、わが身を対象(外)の内側へと移して、「内」の視点で事物を見ようとする特異な表現法を獲得したこと、それが今日の条件法の多彩さをもたらした大きな原因と言ってよい。

조건표현의 형식은 서술내용과 감정의 주체인 <화자>의 시점에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前件(조건절)에 각각 다른 형식을 사용했다는 것은 기쁨을 느끼는 주체로서의 <화자>가 자신의 시점에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森田良行(2003)의 『日本語文法の発想』¹⁷⁾에 따라 조건표현형식의 차

15) 松岡隆志『日本語の条件表現』. くろしお出版、1993. pp1-5.

16) 森田良行『日本語の視点』. 創拓社、1995. pp287-298

17) 森田良行『日本語文法の発想』. ひつじ書房、2003. pp295-310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 (36)こちらも含わせてアドバイス頂けると嬉しいです.
- (37)お役に立つことができたなら嬉しいです.
- (38)皆様のお力を借りれば嬉しいと思います.
- (39)それがもしハンドメイドの場合ならうれしいものですよ
ね (全くの主観)

「～と」는 순접조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적인 상황이나 일상적인 사태를 설정하고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를 말한다. 객체간의 인과관계를 인지할 뿐 <화자>의 의지는 관여할 수 없다. 따라서 예문(36)은 어드바이스를 받게 되는 상황을 설정하여 그 결과 자동적으로 기쁨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화자>의 의지로 일어나는 기쁨은 아니라는 발상이다. 예문(37)은 <화자>가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 기뻐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たら」를 사용한 조건표현은 前件에 거의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을 상정하여 그 문맥장면에 시점을 전이하여 <화자>가 취하게 되는 의지적인 상황을 後件에 나타내는 것이다.

「～ば」는 前件이 원인이 되어 後件이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예문(38)은 모든 사람의 힘을 빌릴 수 있다면 기쁨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なら」는 <화자>가 상황에 접해서 “그렇다면(そうであるなら)”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타자에게서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後件에 <화자>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39)는 그와 같은 <화자> 자신의 주관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위에 제시된 예문을 포함하여 조건표현과 공기하는 예문의 빈도수를 숫자로 정리하면 <표6>과 같다.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은 「～と」이다. 「～と」는 <화자>의 의지는 관여할 수 없으며 자동적으로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쁨은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ば」	「～たら」	「～なら」	「～と」
빈도수	24	31	5	47

<표6 'うれしい'와 공기하는 조건표현>

다음은 조건표현과 공기할 때, 前件(조건절)의 <동작주>가 <화자>가 아닌 경우와 <동작주>가 화자인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의미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前件(조건절)의 동작주가 화자가 아닌 경우의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32)' 足に良い靴を貰えたら, 嬉しいです.

예문(32)' 는 전건의 구두를 주는 <동작주>와 받아서 기쁘다고 말하는 <화자>가 동일인물이 아니다. 'うれしい'가 조건표현과 공기할 때 전건(조건절)의 <동작주>가 <화자>가 아닌 경우로서 기쁨의 원인이 <화자>가 아닌 <동작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前件(조건절)의 <동작주>가 <화자>인 경우이다.

(40)自信がなくてすみません. 参考になればうれしいです.

(41)これだけでも, 消すことができれば, うれしいのですが. 評価のコメントは削除できません

前件(조건절)의 <동작주>와 <화자>가 동일인물이라는 것은 공통점이나 (40)은 화자의 어떤 행위가 상대에게 참고가 되면 기쁘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문이고 (41)는 원인이 되는 대상을 화자 자신이 행하고 화자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표현하는 문이라는 차이가 있다.

3. 조건표현·수수표현과 공기하는 'うれしい'

다음은 조건표현과 수수표현이 공기하여 사용되고 있을 때 'うれしい'의 의미를 분류해보았다. 조건표현의 차이는 <화자>의 시점에 기인한다고 한다.

다음은 각각의 표현으로 분류한 예이다. (위의 조건표현과 마찬가지로 森田 良行(2003)의 『日本語文法の発想』¹⁸⁾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 (42)その辺の事情も書き添えて頂けると嬉しいです. ど
なたかご存知の方、御協力
- (43)デパートのギフト券もらえばともうれしい. それに自分
のお金をプラスして
- (44)できれば判りやすくご説明していただければ 嬉しいで
す. 先ほどの質問家にパソコンが
- (45)教えていただけたら 嬉しいです. パソコンと言っても、分
野が多岐
- (46)友達が綺麗な格好で披露宴に来てくれると嬉しいものです
- (47)不安なのでできるだけ早く答えてくださると嬉しいです.
- (48)好感度を上げるコツとか教えてくれれば嬉しいです. 返信
はなるべく速い方が嬉しいで
- (49)前に騙されたと思って実行してみてくださいたら嬉しいです!
頑張れ!!.

예문(42)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정보를 받고 자동적으로 느끼게 되는 화자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3)(44)는 전건이 원인이 되어 후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상품권을 받거나,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면 기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화자의 요구가 이루어지면 기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여진다. (45)는 화자의 요구를 상대가 응해 주면 기쁘다는 것으로 화자의 적극적인 기쁨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46)(47)에서와 같이 ‘てくれる’와 공기하는 경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 상황이 주어지면 저절로 기쁘다고 하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 문이라 하겠다. (48)는「～ば」가 ‘～てくれる’와 공기하여 외부로부터 화자와는 관계없이 호감도를 높일 요령이나 변화가 주어지게 되면 기쁘다는 것을 나타낸다. 「～たら」는 前件에

18) 森田良行『日本語文法の発想』. ひつじ書房, 2003. pp295-310

거의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을 상정하여 그 문맥장면에 시점을 전이하여 화자가 취하게 되는 의지적인 상황을 後件에 나타내는 것이다. 예문(49)는 일이 실행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수수표현+조건표현과 공기하는 ‘うれしい’의 빈도수를 숫자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 7>와 같다. 현재나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것을 가정하는 조건표현과 공기하는 것으로 ‘~てもら(いただける)とうれしい’라는 문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もら(いただける)・てもら(いただける)・てくれるなら’와는 공기하지 않았다. 또한 ‘~てくれる’와 ‘~てもら’가 조건표현과 공기하는 경우에는 둘 다 자신이 이익을 받는 자(自利)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てもら’에는 이익의 자주적 수여라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てくれる’가 조건의 표현과 공기하는 경우 이와 같은 화자의 표현은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てもら’와 같은 의미가 되므로 ‘~てもら’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화자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자신의 희망을 혼자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인다.

수수표현+조건표현	빈도수
もら(いただける)+と+うれしい	5
もら(いただける)+ば+うれしい	1
もら(いただける)+たら+うれしい	4
もら(いただける)+なら+うれしい	0
~てもら(いただける)+と+うれしい	18
~てもら(いただける)+ば+うれしい	6
~てもら(いただける)+たら+うれしい	4
~てもら(いただける)+なら+うれしい	0
~てくれると+うれしい	10
~てくれれば+うれしい	4
~てくれたら+うれしい	6
~てくれるなら+うれしい	0

<표7 수수표현·조건표현과 공기하는 ‘うれしい’ >

다음은 조건표현과 공기할 때, 前件の <동작주>가 <화자>가 아닌 경우와 <동작주>가 <화자>인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의미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前件の <동작주>가 화자가 아닌 경우의 예문이다.

- (50)一緒に遊んでくれたら、もっと嬉しいかな。
- (51)分かりやすく説明していただけるとうれしいです。
- (52)不安なのでできるだけ早く答えてくださると嬉しいです。

위의 수수표현과도 공기하는 예문에서 보듯이 기쁨의 원인이 <화자>가 아닌 <동작주>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50)같이 놀아주는 사람(동작주)이 있고, (51)알기 쉽게 설명해주거나 (52)가능한 빨리 대답해준다면 기쁘다. 그러나 <동작주>가 <화자>인 경우의 예문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인들에게 기쁨이란 적극적인 자신의 행동에 의해 얻어지는 것(직접적인 기쁨)이라기보다 타인에 의해 주어지는 것(간접적인 기쁨)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てやる／～てあげる’와 공기하는 표현은 보이지 않았다.

4. 그 외 사용실태

다음은 ‘うれしい’와 서로 대응하는 것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본 예문이다.

- (53)突然社内メールが届いたら、イヤですか？嬉しいですか？
それをきっかけにして誘ってみ
- (54)洗濯料理などをしているような子だとしたら嬉しいですか？それとも嫌ですか？
- (55)いきなり声かけたら、嬉しいか、気持ち悪いか、どちらかですよ？
- (56)『ヤクミ』みたいな先生がいたら、嬉しい？それともウザい？

일반적으로 ‘うれしい’와 서로 대응하는 것으로 ‘悲しい’를 들고 있으나 위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イヤ’嫌 ‘気持ち悪い’ ‘ウザい’ 라는 어휘도 ‘うれしい’와 대응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I. 맺음말

『分類語彙表』의 분류번호 3.3011 快·喜び에 수록된 어휘를 대상으로 초판(1964)과 개정판(2004)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기쁨(喜び)’은 ‘快い·愉快·楽しい·うれしい·おもしろい·笑い’로 하위분류할 수 있다. 또한 초판에 비해 개정판의 어휘수가 증가하였으며, 초판에는 없는 ‘コミカル’와 같은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구성면에서도 초판에는 단순어와 속어가, 개정판의 경우에는 복합어와 속어, 연어로 구성되어있는 것이 파악되었다.

그 가운데 ‘기쁨’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 어휘인 ‘うれしい’를 일본국립국어연구소의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YAHOO知恵袋를 분석대상으로 『嬉しい／うれしい』를 포함하는 예문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うれしい’의 사용실태를 분석하였다.

‘うれしい’는 감정형용사로서 원하던 일이 실현되어 마음이 상쾌하고 기쁘고 즐거운 기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일본어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주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다. 의문문의 형태로 <청자>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며, 대부분 감정의 주체로서의 <화자>가 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이는 현장에서 화자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주체의 제로화>라고 한다.

감정의 주체가 ‘うれしい’라고 느끼는 원인이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물건이나 도움, 인사 등과 같은 것을 받았을 때이다. 감정의 주체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기쁨> 인 경우가 많았으며 타자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기뻐하는

<사회적 기쁨>은 많지 않았다. <사회적 기쁨>이라고 해도 감정의 주체와 관련이 있거나 친구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타자를 <자기 쪽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うれしい’와 공기하는 수수표현 가운데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은 ‘~てくれる(~てくださる)’이다. 이는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기대하지도 않은 선물을 주었을 때 더욱 기쁘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てもらう’와 공기하는 예문도 보였다. 자신이 요구하여 타인에게 이득을 얻을 때에도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てやる/~てあげる’와는 공기하지 표현은 보이지 않았다. 감정의 주체의 행위로 타인이 이득을 얻는 상황은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 그러한 상황에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うれしい’가 조건표현과 공기하는 경우에는 前件(조건절)의 <동작주>가 <화자>가 아닌 경우와 <동작주>와 <화자>가 동일인물이라고 하는 2가지 표현이 보이고 있다. <동작주>가 <화자>가 아닌 경우는 기쁨의 원인이 <화자>가 아닌 <동작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前件(조건절)의 <동작주>와 <화자>가 동일인물을 나타내는 문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하나는 <화자>가 그 행위를 하게 되면 기쁨 것이라는 것, 다른 하나는 <화자> 자신이 행하고 <화자>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조건표현·수수표현과 공기하는 경우에는 기쁨의 원인이 <화자>가 아닌 <동작주>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화자>를 위해 <동작주>(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가 있어 기쁘다는 것이다. ‘~てやる/~てあげる’와 공기하는 표현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일본인에게 ‘기쁨’이란 <직접적인 기쁨>이라기보다 <간접적인 기쁨>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적극적인 자신의 행동에 의해 얻어지기보다 타인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うれしい’와 대응하는 것으로 ‘悲しい’를 들고 있으나 ‘嬉

しい—気持ち悪い’ ‘嬉しい—ウザイ’ ‘嬉しい—イヤ’ 와 같이 ‘嫌(イヤ)’ ‘悪い’ ‘ウザイ’와도 대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うれしい’의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감정의 주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자신이 어떤 이득을 얻거나, 감정적인 안정감을 주어질 때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타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는 것은 극히 희박했다. 기쁨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화자와 관계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타인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기쁨의 감정을 느끼는 일은 극히 희박하였다.

기쁨의 원인이 <화자>가 아닌 <동작주(他者)>에게 있다는 것은 <화자>가 기뻐할 행동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쁨’이란 자신의 적극적인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일본인의 의식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 참고 문헌

- 박인조·민경환『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작성과 차원탐색』, 한국심리학회지, 2005.
송경천『日韓兩國語の「喜」の感情表現に関する対照分析』,『日本学研究』,제 26집, 檀国大学校, 2009.1
池上嘉彦『英語の感覚・日本語の感覚』, 日本放送出版協会, 2006.
河原修一『日本語心象表現論』, おうふう, 1998
笠原康子『喜びを表す感情形容詞の意味分析』,『人文学報』No96, 東京都立大学人文学部, 1973.3.
桜木紀子·佐藤由紀子·中村寿子『日本語を教える4』, 1991.

- 寺村秀夫『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1』. くろしお出版, 1982.
- 中村明『感情表現辞典』. 東京堂出版, 1994.
- 西尾寅弥「喜び・楽しみのことば」. 『日本語学』Vol 12. 明治書院, 1993.1.
- 吉川武時『日本語文法入門』. アルク, 1989.
- 松岡隆志『日本語の条件表現』. くろしお出版, 1993.
- 森田良行『日本語の視点』. 創拓社, 1995.
- _____『日本語文法の発想』. ひつじ書房. 2004.
- 『大辞林第三版』. 三省堂, 2006
- 『分類語彙表—増補改訂版』. 国立国語研究所, 2004.
- 日本国立国語研究所.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

❖ ABSTRACT

An analysis on actual usages of the emotive adjective 'ureshii (glad, delightful, happy)'

Kim Jung Hwa

This thesis aimed to investigate the tendency of society and culture through a feeling of 'gladness (delight, happiness)' that people felt after contacting objects or experiencing events.

Gladness was expressed by non-verbal aspects such as facial expressions and gestures or verbal expressions. Verbal expressions were the most advanced way of expressing various and delicate human emotions. Among them, adjectives expressed feelings directly. Therefore, they provided the most effective way to study expressions of feelings.

'Ureshii' was selected as an object of the analysis in order to study actual usages of expressions of gladness. It was because 'ureshii' was the most representative word that expressed gladness in Japanese.

Example sentences were extracted from 'Yahoo! Knowledge' in 'a balanced corpus of the modern Japanese written language (2009)' which was provided by 'The National Institute for Japanese Language'. They were used to examine basic usages, how reasons and contents of gladness were expressed in sentences, which area of gladness they were included.

Also, actual usages were analysed through giving and receiving expressions that appeared together with "ureshii" in order to understand one side of Japanese people's sense of gladness.

Key Words

감정,うれしい, 감정의 주체, 감정의 원인, 수수표현, 조건표현
Ureshii(Gladness), Emotional Subject, Cause, giving and receiving expressions, Conditional expressions

논문접수일: 2009. 11. 11.

심사완료일: 2009. 12. 10.

게재확정일: 2009. 12. 16.